연구논문 ▮ 『항도부산』 제40호, 2020. 8, 209~238 DOI : https://doi.org/10.19169/hd.2020.8.40.209

1910년대 경남 지역 은사수산사업의 운영
- 동래군을 중심으로 -

선우성혜*

| 목 차 |

Ⅰ. 서론
Ⅱ. 동래 지역 은사수산사업의 현황
Ⅲ. 동래 지역 은사수산사업의 전개
Ⅳ.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10년대 경남지역 은사수산사업의 운영을 동래군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한일합방 직후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하사된 임시은사금이 공채로 발행되어 조선의 각 지방에 배여되었다. 1910년 경남지방에 배당된 은사금은 1,606,000원으로 1914년 지방 행정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1,577,700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다시 경남의 각 부군도에 배여되었는데 동래군에는 68,500원이 배여되었고 이중 5%인 3,425원을 기금이자로 하여 수산사업을 진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배여된 금액은 동래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업, 잠업, 機業, 水産, 축산 등 각종 수산사업과 공립보통학교의 보조비, 흉겸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동래 지역에서 이루어진 은사수산사업은 농사장려, 수산장려(水産奬勵), 양잠

* 울산과학대학교 교양과 강사 / assured@hanmail.net

장려, 기업장려(機業奬勵) 등이었다. 농사장려는 주로 순회교사, 마령서종배부, 감저묘배부, 비료종자배부, 농구제조전습 등이었다. 잠업장려는 원잠종제조 및 잠종제조자 양성・잠종배부・상묘배부(桑苗配付) 등이었다. 기업장려(機業奬勵)의 경우 위탁전습소・순회지도・이업원료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은사수산장으로 동래기업전습소가 운영되었다. 수산장려(水産奬勵)의 경우 주로 경상남도가 주가 되었고 경우에 따라 위탁경영 하였는데 어로전습 및 鰛窄粕製造傳習이 있었다. 그 이외 축산장려로 種鷄배부가 있었다.

동래군과 관계된 은사수산사업의 운영을 보면 잠업장려는 정책의 의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농가 경제의 향상을 위한 잠업장려가 도리어 농가에 비용을 전가하게 됨에 따라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수산장려(水産奬勵)의 경우 그 자체로 전습생의 호구지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기업전습(機業傳習)의 경우 은사수산장인 東萊機業傳習所의 운영이 대표적으로 가마니 제조가 주였다. 특히 1910년대 가마니의 공급부족과 가격 인상 등으로 가마니 제조는 부업장려로 적극 권장되는 유망업종이었다. 따라서 동래군과 관계된 여타의 전습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臨時恩賜金, 恩賜授産事業, 漁撈傳習, 蠶業奬勵, 機業奬勵, 農事奬勵, 畜産奬勵

Ⅰ. 서론

한일합방 직후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하사된 임시은사금이 공채로 발행되어 조선의 각 지방에 배여되었다. 그리고 공채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으로 수산(授産), 교육, 흉겸구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10년 경남지방에 배당된 은사금은 1,606,000원으로 1914년 지방 행정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1,577,700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다시 경남의 각 부군도에 배여되었는데 동래군에는 68,500원이 배여되었고 이중

5%인 3,425원을 기금이자로 하여 수산사업을 진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배여된 금액은 동래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업, 잠업, 기업(機業), 수산(水産), 축산 등 각종 수산사업(授産事業)과 공립보통학교의 보조비, 흉겸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은사금에 대한 연구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 임시은사금사업의 운영 방향과 그 실제에 대해 분석한 배민재의 연구[1], 일제강점기 임시은사금의 분배와 성격에 관한 전지영의 연구가 있었다.[2] 한일합방의 대가로 은사금을 받아 혜택을 본 친일인사의 실태와 은사수산산업이 지방 공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김인호의 연구[3],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과 그 특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임시은사금을 논한 이방원·이방현의 연구가 있었다.[4] 일제에 의한 은사금 연구에서 벗어나 고종시기 은사제도의 운영과 실태에 대해 고찰한 김인호의 연구[5], 조선총독부의 제생원 운영과 실태를 분석하면서 제생원의 출발기금이 임시은사금이었음을 간단하게 언급한 조명근의 연구[6],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사회사업에 대해 논하면서 임시은사금에 대해 간략하게 논한 박철규 등의 연구가 있었다.[7] 최근에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임시은사금의 지방비 전환과 임시은사금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8]

---

1) 배민재, 「1910年代 朝鮮總督府 臨時恩賜金事業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10년대(年代)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은사금사업(臨時恩賜金事業)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 『韓國史論』 55, 2009.
2) 전지영, 「일제강점기 臨時恩賜金의 분배와 성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김인호, 「합방의 콩고물, 임시은사금」, 『인간과 문화 연구』 17, 2010.
4) 이방원 · 이방현, 「일제전기(1910~1931)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과 그 특성」, 『서울과 역사』 88, 2014.
5) 김인호, 「고종 순종 시기 恩賜 제도의 운영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6) 조명근, 「조선총독부 제생원의 운영과 실태」, 『전북사학』 54, 2018.
7) 박철규,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의 사회사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2006.
8) 김인호, 「일제강점기 경기도 배당 임시은사금의 지방비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2020 ; 「'조선총독부의 꽁돈', 경상남도 배당 지방 임시은사금 연구」,

기왕의 연구를 통해 은사금의 윤곽과 실태 등이 드러났고 은사금을 받은 내용과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척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더욱이 기왕의 연구는 도 단위까지 수산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府郡 단위의 연구는 아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동래군을 중심으로 군 단위 은사수산사업의 실상을 파악하여 실제 현장에서 은사수산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동래 지역 은사수산사업의 현황

1.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은사금 배여액의 변화

일제는 한일병합 이후 민심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시은사금 17,398,000원을 조선의 각 도부군에 배여하였다. 일제에 의한 임시은사금의 배여액은 인구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임시은사금의 배여액은 달라졌다. 동래 지역 역시 1910년 명칭 변경 이후 1914년, 1936년, 1942년에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1910년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914년 은사금 배여액만을 대상으로 하였다.[9] 동래 지역의 임시은사금의 배여액을 보면 <표 1>과 같다.

『지역과 역사』 46, 2020.

9) 동래군은 1936년과 194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축소되었고 은사금의 배여액도 줄어들었다. 우선 1936년 행정구역의 변화로 동래군은 서면과 암남리(사하면)를 상실하여 11개 면을 관할하였고 이때 은사금 배여액은 58,200원이었다. 이후 동래군은 1942년 동래읍, 장전리・부곡리(북면), 남면, 사하면을 상실하였고 은사금 배여액은 33,400원으로 줄어들었다.

<표 1> 동래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임시은사금 배여액 현황

(단위:원)

구분	부산부 임시은사금 배여액 현황					동래 지역 임시은사금 배여액 현황				
	배여액	이자 수익 (추정)	임시은사금 사업별 투입액 추정			배여액	이자 수익 (추정)	임시은사금 사업별 투입액 추정		
			수산사업	교육사업	흥겸구제			수산사업	교육사업	흥겸구제
1910年	69,800	3,490	2,094	1,047	349	-	-	-	-	-
1914年	39,200	1,960	1,176	588	196	68,500	3,425	2,055	1,027.5	342.5

※출전:『朝鮮總督府官報』, 『最近朝鮮事情要覽(大正七年)』, 朝鮮總督府, 1922.

1910년 무렵 동래 지역(부산부)에 처음 배여된 은사금은 69,800원이었다. 1910년은 동래부가 '부산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본인전관거류지와 舊동래부 영역을 담당하던 때였다.[10]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공포하여 1914년 4월 1일부로 동래 지역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10년에 설정된 부산부의 관할구역에서 부산면을 제외한 7개면(동래면, 서면, 북면, 남면, 좌이면, 사상면, 사하면)이 동래 지역으로 분리되었다.[11] 한편 이 시기까지 독립되어 있던 기장군(관할 8개 면)은 기장면, 일광면, 장안면, 정관면, 철마면의 5개면으로 축소되어 동래 지역에 소속되었다.[12] 이에 1914년 동래군은 12개 면을 관할하였고 은사금 배여액은 68,500원이 되었다.

임시은사금사업은 그 이자 수익으로 진행하였는데 수산(授産)에

10) 총독부는 「지방관관제」를 통해 행정기관의 통일을 꾀하는 이유로 '일본인 거류민·외국인의 각국거류지를 갑자기 개폐하기 어렵다는 점과 부군면의 존폐와 그 구역의 변혁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들었다(『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1940, 8쪽).

11) 이외에 부산면이 부산부(거류지 및 사하면에 속한 4개동의 일부, 용주면 중 일부)가 되었다(「道의 位置, 管轄區域 및 府郡의 名稱, 位置, 管轄區域, 朝鮮總督府令 第111號, 1913년 12월 29일」,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선인, 2010, 122쪽).

12) 『日光面誌』, 日光面誌編纂委員會, 2006, 65쪽.

60%, 교육에 30%, 흉겸구제에 10%의 비율로 배분되었다.[13] 각 지방에 배여된 임시은사금의 이자수익은 약 5%였다. 이 비율에 따라 동래군의 은사금 사업비를 추정해보면 1914년 동래군의 임시은사금 이자수익은 3,425원이었다. 그 중 수산사업비(授産事業費)는 2,055원, 교육사업비는 1,027.5원, 흉겸구제비 342.5원이었다.[14]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되기까지 동래군의 은사금 배여액과 은사사업의 기본 금액은 대체로 위 금액 수준이었다.[15]

1914년 이후 동래군은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1936년과 194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축소되었고 은사금 배여액도 변화하였다. 동래군의 행정구역 축소는 부산부의 도시화・확대로 이어졌고 부산부가 발전하는 만큼 동래군의 상대적으로 소외되어갔다. 동래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는 기본적으로 부산부의 도시화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대체로 부산부는 일본인 중심이었고 동래 지역은 조선인 중심의 지역이라는 점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었다. 때문에 임시은사금이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府의 도시화에 의한 것이지만 府의 도시화・확대 과정은 일면 조선인 중심의 郡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총독부의 행정이 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1910년대 동래지역을 중심

13) 「第三節 府郡島臨時恩賜金事業」, 『最近朝鮮事情要覽(大正七年)』, 朝鮮總督府, 1922, 201쪽.

14) 1936년에는 이자수익 2,910원 중 수산사업비 1,746원, 교육사업비 873원, 흉겸구제비 291원이었다. 1942년에는 이자수익 1,685원 중 수산사업비 1,011원, 교육사업비 505.5원, 흉겸구제비 168.5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 여기에서는 전년도 조월금, 기금수익 등을 제외한 해마다 배여된 은사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왕의 연구(김인호, 앞의 논문, 2020)에서 경상남도 은사금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래군의 경우 1910년대 또는 분리된 이후 임시은사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군예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910년대 연도별 동래군의 예산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으로 은사수산사업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1914년 이후 은사금 변화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2. 1910년대 동래 지역 은사수산사업의 현황

은사금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수산사업(授産事業)이었다.[16] 수산사업은 '양반유생과 같이 일정하고 안정된 재산(생업)이 없는 자에 대해 산업을 수여하는 취지에서 이들을 자비심으로 어루만져 돌보아 주고', 경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은 '漉紙 및 양잠 등과 같은 경영에 용이해서 공들인 보람이 확실하고 가령 경미함에도 이로서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기에 족한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17] 1910년대 은사금은 경남도에서 각 부군으로 배여되었고, 은사수산사업은 대체로 府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10년대 초 경상남도의 수산사업(授産事業)은 양잠·기업(機業)·제지·가마니(繩叭)·海苔製造·어로 및 造船工의 각 전습, 양잠 및 보통농사에 관한 실업순회교사의 설치, 種苗·種畜 및 種鷄의 배부, 車輛대여, 綠肥補助의 5종 중 양잠·제지·機業 등이었다.[18] 그리고 이들 사업이 지방산업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마산부·부산부는 독립 경영, 어로·조선공 및 마산부 기업전습을 제외한 전습소는 위탁전습을 하였다.

동래군의 은사수산사업의 경우 사업 및 지출과 관련하여 현재 연속

16) 한편 동래군에서 授産事業 이외에도 교육 사업으로 공립보통학교 보조가 있었다. 동래 지역에서는 1907년 설립된 東萊公立普通學校와 1912년 설립된 機張公立普通學 등에 교육비 보조가 있었다. 흉겸구제의 경우 수해피해 등의 흉년에 이재민을 구제하고 그 이외 남은 금액은 비상시를 위해 축적하였으며 구제의 경우 식량, 種穀, 농구 등 급여를 통해 생업을 부조하려고 하였다(「임시은사금 사업, 授産業, 교육사업, 凶歉구제」, 『每日申報』, 1915년 12월 18일). 『東萊案內』, 東萊郡, 1918, 부산근대역사관 소장. 『釜山教育五十年史』, 釜山府・釜山教育會, 1927).

17) 『(朝鮮各道府郡)臨時恩賜金由來及基ノ事業概要』, 朝鮮總督府, 1911, 20쪽.

18) 『(朝鮮各道府郡)臨時恩賜金由來及基ノ事業概要』, 朝鮮總督府, 1911, 71~73쪽.

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지만 타 도 또는 경남도 은사수산사업을 통해 그 내용을 추계하고자 한다.[19] 추계의 이유를 찾자면 1910년대 은사수산사업은 각 부군(府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예산의 관리는 도장관이 하였다. 또 황해도와 같이 은사금의 지방비 편입 시기(1917년) 이전에 이미 지방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은사수산사업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자금이 부족할 경우 각 부군은 공동 부담하여 수산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20] 동래군에서 은사수산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1915년에서 1916년 전후이다. 따라서 경기도 및 황해도, 은사공동사업장 등 사례를 참고하고 1915년, 1916년 경상남도 은사수산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동래군 은사수산사업의 내역 및 지출 등에 대해 추계하고자 한다.

한편 1911년에서 1916년까지 경남지역 은사수산사업의 지출 내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래군의 은사수산사업비의 지출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 1915년, 1916년 전후 무렵 동래군 관련 은사수산사업에 대해『大正五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槪要』(朝鮮總督府內務部, 1916.)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1915년, 1916년 무렵 동래군의 은사수산사업비를 동일시기 경남의 각 사업별 지출비 대비 세출 비율을 기준으로 추계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3> 1915년, 1916년 동래군 관련 은사수산사업비 추계

은사수산 사업 항목	1915년 授産費 및 사업 내용 추계			1916년 授産費 및 사업 내용 추계		
	수산비	사업별 수산비	사업 내용	수산비	사업별 수산비	사업 내용
農業奬勵費	2,232 (65.18%)	749.95 (33.6%)	巡廻教師	2,355.72 (68.98%)	749.12 (31.8%)	巡廻教師
						農具製造傳習

19) 1910년대 동래군의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파악되지 않는다. 때문에 추후 자료의 확보와 함께 후속 연구에 기대고자 한다,

20) 김인호, 앞의 논문 2020b.

			農事奬勵費			馬鈴薯種配付
						甘藷苗配付
						種苗配付
蠶業奬勵費		665.14 (29.8%)	原蠶種製造所費		612.49 (26%)	傳習講習費
						蠶種製造補助
工業奬勵費		618.26 (27.7%)	機業委託傳習費		767.96 (32.6%)	機業傳習所設業費
			機業巡廻教師費			製紙傳習所
			製紙巡廻教師費			企業教師費
						機業原料購入費
水産奬勵費		147.31 (6.6%)	漁撈傳習費		174.32 (7.4%)	漁業傳習費
						水産製造傳習費
						漁具配與及同補助
畜産奬勵費		51.34 (2.3%)	種鷄費		51.83 (2.2%)	種鷄及種卵配付費

※출전:『大正五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朝鮮總督府內務部, 1916)., 「大正4年度慶尙南道臨時恩賜金歲入歲出決算ノ要領左ノ如シ」, 『朝鮮總督府官報』(1916년 11월 28일 1295호 5면).

우선 <표 2>에서 수산비(授産費)는 1915년에서 1916년 동래군 수산비 추계로 동래군 은사사업비를 동일시기 경남도 은사사업에서 은사수산사업 비율에 따라 추계한 것이다. 사업별 수산비는 동래군과 관계된 각종 은사수산사업의 비용 추계로 동일시기 경남도 은사사업별 수산비 비율에 따라 추계한 것이다. 사업 내용의 경우 은사수산사업으로 『朝鮮總督府官報』, 『大正午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1916년) 등을 통해 동래군과 관련될 수 있는 세부 사업을 정리하였다. 은사수산비는 1915년에서 1916년 사이 3.8% 증가하였다. 동일시기 사업별 수산비로는 농사장려는 1.8%, 잠업장려는 3.8%, 축산장려는 0.1% 감소하였다. 대신 공업장려와 수산장려(水産奬勵) 각 4.9%, 0.8%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 공업장려비가 증가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공업장려책의 영향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공업전습과 관련하여 개인이 기획한 공업전습사업계획 또는 유망 공업 창업 시 보조, 원료의 모집과 제품 판로의 알선, 기구의 개선, 기술의 개량 등 여러 공업의 보조를 꾀하였다. 주요 보조 사업은 각 도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기업(機業), 제지, 철공,

제사(製糸), 요업 등이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패세공(貝細工), 기업(機業), 제사(製糸), 목금공업 등 사업이었다.[2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은사수산사업 역시 공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표 2> 은사수산사업의 각 항목을 보면 농사장려의 경우 1915년에는 약 1.8% 감소하였으나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농사장려비는 주로 순회교사배치・마령서종배부・甘藷苗배부・비료종자배부・농구제조 전습 등에 사용되었다. 잠업장려는 원잠종제조 및 잠종제조자 양성・잠종배부・상묘배부(桑苗配付) 등에 사용되었다. 잠업의 경우에도 일본 생사관련 대외 무역의 불리함 완화, 제사업 등 산업에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었다.[22]

동래군에서 공업장려는 주로 기업(機業)과 관계된 것이었다. 공업장려비에는 위탁전습소・순회지도・기업원료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동래군의 기업전습소로는 은사수산장인 동래기업전습소(東萊機業傳習所)와 동래기업소(東萊機業所) 등이 있었다. 동래기업전습소의 전습생은 남・여 또는 여자 생도 30명 이상이었으며 동래기업소는 남・여 또는 여자 생도 45명 이상이었다. 이들은 현재 확인되는 전습소 교육생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사업비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업전습은 주로 가마니제조로 1910년대 가마니 수입의 단절로 인한 가격 인상 등으로 부업으로서 장려된 것 중 하나였다.[23]

수산장려(水産奬勵)의 경우 동래군이 아닌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 위탁 운영하였다. 동래군에서는 부산 또는 울산 근해에서 이루어진 어로전습 및 온착박제조전습(鰮窄粕製造傳習)이 각각 5명이 참여하였다. 그 이외 축산장려로는 종계(種鷄)배부가 있었다.

---

21) 『매일신보』, 1915.12.1., '공업장려보조'.
22) 『每日申報』, 1926.4.15., '朝鮮蠶業奬勵 의 意義 (上)'.
23) 『부산일보』, 1917. 2. 8., '경남의 가마니제조'.

동래군 은사수산사업의 항목을 보면 사업비는 대체로 전습소와 이를 담당하는 교사 등에 약 50%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전습소의 경우 경남도가 직접 관계된 것 이외에 경남 각 부군(府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위탁경영에 맡겼다. 이는 은사금의 이자수익 확보의 불안정, 지역 내 관계자를 통한 간접적 사업 추진의 효율성 기왕의 연구와 같이 은사금의 이자수익의 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탁으로도 보인다.[24] 전습소 등 관련 교사 등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1916년을 참고할 수 있는데 당시 경남지역에는 수산사업(授産事業)에 관련된 직원으로는 39명이 고용되었다.[25] 고용된 이들은 각 지역에 전습소 운영에 관여하거나 순회 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중 조선인은 주로 보조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동래 지역에서 수산사업(授産事業)에 관련된 교사, 보조, 통역 등 인원은 약 17명 정도로 추계된다. 대체로 어로전습 및 鰛窄粕製造傳習과 관련하여 어업조수 5명, 잠업전습소 운영과 관련하여서 교사 및 조수 6명, 機業傳習所 2곳과 관련하여서는 교사, 조수, 통역 등 각 전습소당 3명씩 총 6명 정도가 파견된 것이었다. 이들은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간에 맞춰 각 지역으로 순회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래군과 관계된 은사수산사업 중 비교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잠업장려, 수산장려(水産奬勵), 기업장려(機業奬勵)를 사례로 그 운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4) 배민재, 앞의 논문, 2008 ; 앞의 논문, 2009. 김인호, 앞의 논문, 2010 ; 앞의 논문, 2020.

25) 보통농사에는 농사순회교사 19명, 잠업에는 잠업전습소교사 3명・조수(조선인) 3명 등 6명, 수산(水産)에는 어업조수 5명으로 사업기간 중에 고용하였다. 공업에는 기업교사(機業教師) 4명, 기업전습소교사 1명, 조수 1명, 통역(조선인), 제지교사 1명, 제지관련 통역(조선인) 1명 등 9명 등이 고용되었다. 수산사업의 사업기간 중 고용된 5명을 제외하면 상시고용자는 34명이었다(『大正五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朝鮮總督府內務部, 1916, 4쪽).

Ⅲ. 동래 지역 은사수산사업의 전개

1. 蠶業奬勵의 사례

동래군에서 잠업장려와 관련해서는 원잠종제조(原蠶種製造), 잠종제조자 양성(蠶種製造者 養成), 잠종배부(蠶種配付), 상묘배부(桑苗配付) 등을 들 수 있다. 잠업은 개항 후 조선에서 식산흥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해 왔으나 한일병합 후 총독부는 이를 幼稚하다고 평가하며 일본식 개량 양잠을 보급하였다.[26] 양잠은 '보통의 士民婦女도 용이'[27]하고 '능히 조선의 풍토에 적합하고 빈부상하를 통해 최고로 簡易하고 적절한 부업으로 특히 양반유생에게 충분히 적당한 생업'[28]으로 장려되었다.[29] 1914년 총독부는 각 도 장관에게 우량 잠종의 보급, 稚蠶공동사육소의 설치, 여성의 잠업 장려, 산견판매의 알선 등에 관해 훈시하였다.[30] 잠종은 1910년 당시 재래종이 93%를 차지하였으나 1917년에는 반대로 일본종이 94%를 차지하였다. 총독부는 조선의 풍토에 적합한 春蠶 3종, 夏蠶과 秋蠶 각 1종 해서 모두 5종을 권업모범장에서 제조할 것을 꾀하였다. 이들 5종의 原蠶種은 각 도에 배부되었고 도에서는 이를 농잠기관을 통해 잠종을 제조하여 일반 부업자에게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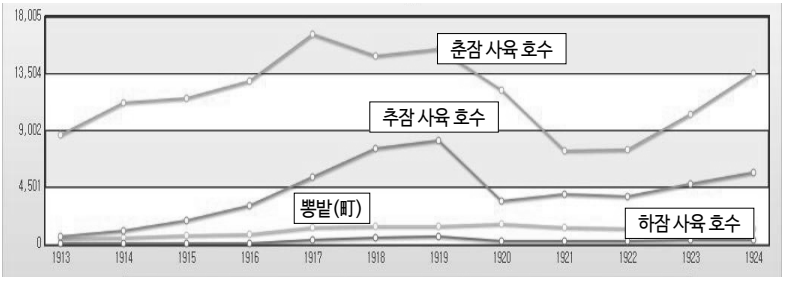
동래군에서 잠업과 관련해서는 동래군사립잠업전습소(東萊郡私立

26) 『대한흥학보』 3, 1909. 5. 20., '韓國蠶業에 對ᄒᆞᆫ 意見(續)'
27) 「朝鮮統治三年間成績」, 『朝鮮統治三年間成績』, 朝鮮總督府, 1914, 23쪽.
28) 『(朝鮮各道府郡)臨時恩賜金由來及基ノ事業概要』, 朝鮮總督府, 1911, 20쪽., 「附錄: 總督府ノ開始ニ付各道長官ニ對スル訓示」, 『朝鮮統治三年間成績』, 朝鮮總督府, 1914, 24쪽.
29) 「附錄:蠶業奬勵ニ付道長官及勸業模範場長ニ對スル訓示」, 『朝鮮統治三年間成績』, 朝鮮總督府, 1914, 57~59쪽.
30) 「蠶業奬勵ニ付道長官及勸業模範場長ニ對スル訓示」, 『朝鮮統治三年間成績』, 朝鮮總督府, 1914, 57~59쪽.

蠶業傳習所)가 주목된다.[31] 동래군사립잠업전습소는 개인경비가 사용되었고 지방비에서 70원의 보조가 있었다. 주요 전습 내용으로는 뽕나무 심기(栽桑), 양잠(養蠶), 종자 만들기(製種), 번데기 죽이기(殺蛹), 건조(乾燥), 고치에서 실뽑기(製絲), 견물정리(絹物整理), 양잠도구 제조(蠶具製造) 등이 이루어졌다.[32] 1910년대 지방비 은사금의 회계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황해도와 같이 이미 은사금을 지방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동래군사립잠업전습소 역시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렇다면 잠업장려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917년 동래군에서 추잠을 공동 판매한 기록 등도 있어 경남지역 가잠을 중심으로 사육 호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동래 지역 상황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그림 1>는 1913년에서 1924년 사이 경남지역 가잠 사육호수 및 뽕밭 현황이다.

<그림 1> 1913년-1924년 경남지역 가잠 사육 호수



※출전: 「가잠」(통계청, 광복이전통계, http://kosis.kr/).

31) 본 연구자는 처음 동래군사립잠업전습소를 은사금 사업의 일환으로 보았다. 기왕의 연구(김인호, 앞의 논문, 2020(a·b)에서 은사금은 1917년 지방비에 편입되어 지방비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황해도와 같이 1914년에 이미 지방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府郡단위의 회계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방비 역시 은사금으로 보았다. 그러나 동래군사립잠업전습소의 경우 기본 경비가 개인 경비였으며 지방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은사수산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기왕의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32) 『朝鮮總督府官報』 1916. 12. 14. 1309호 4면, '彙報:蠶業傳習所狀況'.

1913년에서 1924년 사이 경남지역 가잠(춘잠, 하잠, 추잠 등) 사육 호수는 춘잠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추잠, 하잠 순이었다. 각 잠종별로 사육 호수를 보면 춘잠의 경우 191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1921년까지 감소하였고 다시 1924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추잠의 경우 1919년까지 증가하다가 1920년에 급감하였고 이후 1924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잠의 경우 1919년까지 미약하게 증가하였다가 1920년에 감소한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누에를 치기 위해서는 뽕잎의 수급이 필요한데 <그림 1>을 보면 뽕나무 밭은 1913년에서 1917년 까지 약간 증가한 이후 크게 변화가 없다. 전체적으로 가잠의 사육 호수가 가장 감소했을 때조차도 뽕나무 밭의 수는 변화가 크기 않았다. 때문에 양잠치는 것에는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10년대 동래군의 양잠과 관련하여 <그림 1>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1923년『동아일보』기사 내용이다.「無桑養蠶:現今政治에 대한 批判(東萊 玄冲生)」이라는 기사에는 뽕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양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농가에서 지는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부업으로서의 양잠개량 장려가 '無桑養蠶'으로 농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것이다.[33] 양잠을 치기 위한 잠종지는 양잠전습소 졸업생 1, 2인에 한하여 제조 판매 하거나 군청에서 각 면으로 각 면에서 각 리로 또 각 리에서 각 호로 배분하였다. 잠종지는 유상으로 배부되었으며 누에를 치기 위한 뽕나무 잎 등도 농가에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장이 소용이외의 잠종지를 묶여두고 자기가 잠종지 갑을 건물로 끌어 놓거나 억지로 촌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잠종지를 배분받은 농민들은 누에를 치다가 중간에 뽕잎이

33)『동아일보』1923. 5. 25., '無桑養蠶, 훌륭한 통계표, 東萊 玄冲生(本社 一千號紀念「現今政治의 批判」當選作'.

부족하여 유상으로 받은 누에씨라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해 잠종지 몇 장, 양잠호수 몇 호 라고 통계하여 가을에 잠종지 대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농가에서는 누에도 못치고 고생하고 돈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농민들은 유상으로 잠종지를 받고도 누에치는 비용이 부족해서 포기하여 돈만 낭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점은 양잠 장려에 의한 효과가 전습생에게 구복(口腹)을 채우는 것 이외 일반 농가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이다. 즉, 동래사립잠업전습생은 교육기간동안 식비 등의 혜택을 받았고 전습소 수료 후에도 양잠업 경영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 잠업상황은 농가경제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였다.

요컨대, 1910년 은사수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양잠장려는 각 군에서 관계하였고 이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농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신문에 논고를 적은 사람은 東萊 玄冲生으로 되어있는데, 동래 지역의 아무개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동래군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림 1>과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1910년대 은사금에 의한 양잠장려사업의 불안정과 모순을 볼 수 있다. 이는 식민지 행정의 호혜성을 전하려는 식민지 당국과 그에 부응해가는 지방 행정의 관계 속에서 농가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水産奬勵의 사례

동래 지역과 관련한 水産事業으로는 경상남도가 중심이 된 漁撈傳習, 漁業傳習과 울산군에 위탁하여 이루어진 鰛窄粕製造傳習委託등이 있었다. 어로전습을 위해 도내 거주하는 일본인 어업자 중 교사 3인을 선

정하고 1인 1개월에 급료 30원, 여비 1개월 10원 이내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산, 통영, 삼천포 3개소에 주재하게 하여 담임구역(사천, 남해, 하동, 고성, 통영, 김해, 울산, 동래, 창원 등)을 정하고 도 기술관 감독 아래 어로방법을 전습하게 하였다. 전습생 정원은 각 분기별 40명~50명(1916년 50명)이었다. 이후 전습수료 후에 청어(鯖)어업자에 대해 3인을 1조로 하고 1조에 300원의 鯖壺를 부여하였다.[34] 어업전습은 처음 실시되었던 1911년부터 1913년까지는 1년에 1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1914년부터는 1년에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 경상남도의 은사수산사업인 어로전습은 1911년부터 개시되어 매년 1회 갈치(太刀漁), 갯장어(アナゴ), 도미(鯛), 붕장어(ハモ) 등의 연승어업(延繩漁業) 가운데 한 종류를 전습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봄가을 두 차례 그것을 가게 된 것이 처음에는 성적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점차 양호하게 향해 이번 봄과 같은 최고 성적에서는 3개월간에 한 척으로 122원 내지 73원의 어획물이 있어 몇 해 전 부터 계속 시행한 결과는 일반 조선인 어구어법의 개량을 촉진하고 대단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번 가을에도 역시 개시한 것이 목하 본도 수산기수 고무라 쯔네이치(河村常一) 씨가 부산에 와서 준비 중으로 내일 12일 경부터 출동하는데, 이번에는 울산군에서 15명, 동래군에서 5명, 창원군에서 5명 총 25명을 어선 5척에 나누어 태워서 다년 본도 연해의 어업에 종사, 경험 있는 5명의 실시교사를 각 1명씩 승조(乘組)하는 것으로서 갈치(太刀漁) 및 갯장어(アナゴ), 연승어(延繩漁)를 중심으로 잡어의 낚시도 전습한다라고 한다.[35]

1915년 9월 동래군에서 2기 어로전습에 참여한 전습생은 5명으로 같은 시기 울산군에서는 15명, 창원군에서 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전습

34) 『경남일보』, 1911. 5. 25., '漁業傳習方法'.
35) 『부산일보』 1915.9.11. '慶南漁撈傳習-恩賜授産事業の一'.

생은 군수가 선정하여 전습소장에게 보고되었다. 전습기간은 9월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1915년에는 갈치, 갯장어, 연승어업을 중심으로 낚시도 전습하였다. 당시 도 기수였던 고무라 쯔네이치(河村常一)가 파견되었으며 실시교사로 경남의 연해 어업에 종사한 사람 5명이 고용되었다. 이후 1917년 행정구역 개편이 마무리 되는 즈음 조선총독부에 의해 임시은사금은 지방비로 편입되면서 수산사업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36]

이 무렵 동래 지역에서 이루어진 어로전습은 경상남도 수산전습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17년 '경상남도 수산전습소 제1기 어로전습'[37]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경상남도가 1917년 무렵 설치한 수산전습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 것이었다.[38] 임시은사금이 지방비로 편입되는 무렵 경상남도 수산전습소가 설치되었고, 어로전습 등이 운영되었다. 정황상 경상남도 수산전습소 제1기 어로전습의 경우 지방비로 편입된 은사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15년 어로전습 이후 동래군에서는 경상남도 수산전습소 제1기 어로전습에도 5명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어로전습의 전습생은 전습기간 및 수료 후 관련 업종 종사 시 각종 혜택을 받았다. 1916년 무렵 은사금의 사업개요에 따르면 당시 전습생의 1일 식비는 20전 이내로 급여되었는데 1개월에 약 4원 40전가량 되었다. 전습 수료 후에는 전습 사업과 관련한 어구 일체를 1인 혹은 1組로 급여 받았다. 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건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였다.[39]

36) 김인호, 앞의 논문, 2020(a·b).
37) 『부산일보』 1916.6.8. '경상남도는 국고 보조로 수산전습소 신설'.
38) 경상남도 수산전습소는 1916년 국고보조로 부산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설치가 중지되었다(『부산일보』 1916.2.21., '국고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수산젭습회 설치중지'.). 이후 경상남도 수산전습소는 통영에 설치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8.8.9. 1811호 5면, '慶尙南道水産傳習所規則左ノ通定ム').

그와 같은 혜택에 대해 1915년 어로전습사업에 참여한 동래군 5명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습기간을 3개월로 가정하고 1일 식비 20전을 기준으로 1인 1개월 식비를 4원 20전으로 보았을 때 1인당 1기 전습동안 식비는 13원 20전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개월 중 최소 12일, 3개월 교육기간 중 최소 36일 전습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이 전습을 수료한 후 전습 내용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그와 관련한 어구를 지원받았으며 배를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당시 수료생들은 주낙 358鉢, 학공치(サヨリ)자망 2쌍 분을 지원받았다.[40] 이를 보아 이들의 전습 내용은 주낙어업과 학공치 자망어업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1917년에도 부산 근해에서 어업전습이 전개되었고 역시 동래군에서도 5명, 울산군에서 15명, 창원군에서 10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전습 내용은 방어(ヒラス) 및 잡어연승으로 배 1척당 5명씩 탑승하였다.[41] 이들 전습생 역시 1916년 또는 19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어로전습 전습생들에게 식비가 1일 15전씩 지급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어로전습에서 지원되는 식비는 대략 1인 15전에서 20전 사이였다. 그 이외 1918년에는 어획고의 반액을 지급받았으며 선박을 건조할 경우 보조금으로 80원을 받았다.[42] 당시 어로전습과 관련하여서는 나날이 성적이 좋아지고 있으며 전습을 위한 조선인 전습생의 경쟁도 치열하고 향학열도 높다고 평가되었다.[43]

39) 『부산일보』 1918. 9. 18., '경상남도 수산전습소 제1기 어로전습생[漁撈傳習生] 습료식[習了式], 전습생 우대'.
40) 朝鮮總督府內務部, 『大正五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 朝鮮總督府, 1916, 27쪽.
41) 『부산일보』 1917. 10. 4., '경남 어업 전습'.
42) 『부산일보』 1918. 9. 18., '경상남도 수산전습소 제1기 어로전습생[漁撈傳習生] 습료식[習了式], 전습생 우대'.
43) 『부산일보』 1915. 7. 25., '경남 어로[漁撈] 전습 상황'.

그 이외 동래군에서는 온착박제조전습(鰮窄粕製造傳習)에도 참여하였다.[44] 온착박제조전습은 위탁으로 운영되었는데 위탁처는 울산군 서생면 守谷製造所로 전습인원 5명이었다. 여기에는 동래 이외 울산에서 참여하였다. 전습기간은 5월~7월의 3개월로 위탁료는 1인당 1개월에 1원50전 이내였다. 전습생 보호를 위해 식비는 1일 20전 이내로 급여하였고 1916년 현재 1일 15전이 지급되었다. 수료자는 제조용 기구를 급여 받을 수 있었다.

대체로 어로전습 등 수산장려(水産奬勵) 사업은 경남 도 운영으로 진행되었는데 위탁의 경우라도 경남 도 수산사업과 유관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군에서의 온착박제조전습은 서생면에서 선박・어구개량, 어로방법 개선 등에 관심을 가졌던 재조일본인 어업자 守谷利助가 운영하였다.[45] 守谷이 관심을 둔 선박・어구개량, 어로방법 개선 등은 은사금에 의한 수산장려(水産奬勵)에서도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이는 경남도가 직접 나서는 것 보다 이미 그 지방에서 자리를

44) 朝鮮總督府內務部, 『大正五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 朝鮮總督府, 1916, 27쪽.

45)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京城), 『조선공로자명감』, 朝鮮總督府, 1935, 289쪽. 조선총독관방 외사과(京城),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朝鮮總督府, 1935, 1093쪽에 의거하여 서생면의 守谷製造所는 守谷利助가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守谷은 1908년 울산에 와서 선박・어구 개량, 어로방법의 개선 등에 노력했다. 그리고 1916년 5월 22일 이주 일본어부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기부 및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학교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자가 되었다. 1920년 서생우편소의 우편소장, 서생면협의회원을 지냈으며 도평의원에 선출되어 도정에 참여하였다. 1926년에는 서생면 화산-명산 사이에 교량 7개소 설치하는데 자금을 부담하였다(『동아일보』 1926. 1. 13. '橋梁七個所架設, 慶南蔚山郡西生面新岩里守谷利 助氏의 美擧'.). 그 공로로 수차례 표창(1923년 공적 및 기념 회중시계 수여・1925년 紀元節의 가진제에서 표창 등)을 받았다. 『조선공로자명감』 守谷利助의 인물평에 따르면 '조선에 살아야 한다는 의지 및 울산지방 및 수산업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둘째 아들이 미에현수산학교 출신의 守谷史郎이었다 (『조선공로자명감』, 앞의 책, 1935, 289쪽. 조선총독관방 외사과(京城),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1935, 1093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 검색일 : 2020. 5.20.).

잡았던 재조일본인을 동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나아가 온착박제조는 1910년대 중반이후 공업용 원료로 주목받던 정어리기름 생산의 확대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46]

그렇다면 은사수산사업은 동래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현재 동래군 관련 자료에서 어업자 수를 연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한정된 자료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추계는 1917년 무렵 동래군 조선인 승조인원을 어업자로 보고 동시기 동래군 조선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6%를 기준하였다. 이에 <표3>과 같이 1914년에서 1918년 사이 동래군 조선인 인구에서 6%의 비율을 어업자로 추계하였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경남지역 어업자의 동향을 함께 정리하였는데 어업전습 또는 어로전습의 경우 위탁이든 아니든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3> 1914년-1918년 동래군 조선인 어업자 추계

	구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1918년	지수평균
동래군	어업자 (승조원)*	4,535	4,761	4,844	4,957	4,857	101.41
	지수	100	104.98	101.74	102.33	97.98	
경상 남도	전업	2,426	3,009	3,246	3,452	3,562	108.29
	지수	100	124.03	107.88	106.35	103.19	
	겸업	6,805	6,882	7,131	9,418	9,532	107.61
	지수	100	101.13	103.62	132.07	101.21	

※출전:『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2년-1919년).

동래군의 경우 현재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1917년 무렵 동래군에 조

46) 심재욱 · 하원호, 「일제강점기 동해 어족 자원의 수탈과 활용」, 『숭실사학』 38, 2017.

선인 어선수가 872척, 승조인원은 4,935명이었으며 일본인 어선수가 216척, 승조인원 968명이었다.[47] 이들 승조인원을 어업자로 보았을 때 1917년 동래군 조선인 인구 중 조선인 어업자는 약 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914년 4,535명이었던 어업자는 1915년과 17년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했을 뿐이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전업자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겸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동래군의 어업자가 1915년 이후 감소하는 것은 경상남도 어업전습소의 통영 설치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1915년 무렵 어로전습은 부산 근해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동래를 비롯해 창원, 울산 등 인근 지역의 전습생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후 1917년 무렵부터 어로전습은 경상남도 수산전습소가 설치되어 주도하였다. 원래 경상남도 수산전습소는 부산부에 설치할 것이 고려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통영군에 설치되었다.[48] 이는 1917년 경남도 전체 어업자수는 증가하였으나 동래군 어업자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의 요인으로 보인다.

3. 機業奬勵의 사례

기업전습은 주로 가마니제조로 1910년대 가마니 수입의 단절로 인한 가격 인상 등으로 부업으로서 장려된 것 중 하나였다.[49] 동래군에서 기업장려의 분위기는 1910년 전후부터 나타났다. 당시 언론에서는 동래부 읍성내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기업(機業)을 꼽았다.[50] 이러한 가운

47) 동래군, 『東萊案內』, 1918년, 부산근대역사관 소장자료.
48) 경상남도 수산전습소는 1916년 국고보조로 부산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설치가 중지되었다(『부산일보』 1916. 2. 21., '국고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수산전습회 설치중지'.). 이후 경상남도 수산전습소는 통영에 설치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8. 8. 9. 1811호 5면, '慶尙南道水産傳習所規則左ノ通定ム').
49) 『부산일보』 1917. 2. 8., '경남의 가마니제조'.
50) 『경남일보』 1910. 12. 13., '東萊機業奬勵'.

데 동래군 동래면에 1909년 12월 은사수산장의 하나인 東萊機業傳習所가 설립되었다.[51] 『朝鮮總督府官報』의 전습소 상황을 보면 동래기업전습소 경영자는 田部喜平治이었으며 1915년 말 전습소 현황을 보면 강습자는 8명이었으며 수료자는 4명이었다. 그런데 동래기업전습소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확인되는 『朝鮮總督府官報』, 『매일신보』, 『大正午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등의 내용이 상이하다.

1912년 『매일신보』에 나타난 동래기업전습소 졸업식 관련 기사에서는 당시 졸업생이 21명으로 게재되었다.[52] 1915년 무렵 동래기업전습소 관계자 田部喜平治[53]에 따르면 동래기업전습소는 매회 1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54] 또 『大正午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1916년)는 동래기업전습소의 전습생 정원은 남・여 또는 여자 생도 30명 이상이었다. 1회 교육기간은 6개월로 매년 2회씩 교육이 있었으며 1915년까지 9회 동안 배출한 수료생은 약 7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비슷한 시기임에도 기록상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정 가능한 것은 기록의 오기 또는 실제 조사보다 언론 발표가 조금 더 과장되게 실적을 홍보한 것 또는 설립 이후 전습생 수가 점차 증가한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1909년 설립 이후 1912년. 1915년 기사, 1916년 보고서 등을 고려하면 초기 10명 미만의 전습생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동래기업전습소는 은사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운영 경비는 3,602원으로 지방비 보조가 100원이 있었다.[55] 1915년 말 무렵 경남의 공업전습

51) 『朝鮮總督府官報』 1916. 9. 16. 1238호, 14면, '地方工業傳習所表'.
52) 『每日申報』 1912. 6. 22., '機業傳習 졸업식'.
53) 신문기사(『조선시보』 1915. 9. 27., '東萊 授産事業')에는 동래기업전습소 관계자로 '田部井喜治郎'이 언급된다. 관보에 기록된 田部喜平治과 동일 인물인데 잘못 표기된 것인지 다른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동일 인물로 보고 관보에 기록된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54) 『조선시보』 1915. 9. 27., '東萊 授産事業 '.

소는 27개소로 그 중 은사수산 경영에 관계된 것은 8개소. 지방비 경영에 관계된 것은 3개소, 개인 또는 조합의 경영에 관계된 것은 16개소였다. 당시 은사금으로 경영되는 기업전습소 또는 수산장은 경기도은사수산장, 충청북도 기업전습소, 은사수산 경북도기업소, 마산기업전습소, 춘천기업전습소 등이었다. 동래기업전습소는 위탁으로 개인이 경영하고 지방비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1912년과 1917년의 신문기사에서는 '은사수산장', '은사금으로 설립'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황해도의 경우처럼 은사금이 지방비에 포함되기 이전에도 지방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동래기업전습소는 1회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해마다 4월에서 10월, 9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전습이 있었다. 1915년 9월 무렵에 동래기업전습소는 9회 수료식을 가졌는데 매회 10여 명이 배출되었다. 이들 전습 수료생 중에는 전습기간에도 공임을 받고 일한 이들도 있었다. 전습 수료생들은 1915년 8월부터 御大典記念으로 대전용 국기를 제작하는 등 전습 수료 후 취업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전습소보다 기업(機業)과 관련된 전습소의 전습생 수가 많은 편이었다.

동래기업전습소도 다른 전습소와 같이 생도보호를 위한 식비, 수료 후 기구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다. 식비는 1일 20전 이내로 급여하였는데 1916년에는 1개월에 3원이 지급되었는데 6개월 교육기간 동안 1인 18원이 지원된 셈이다. 전습생 정원이 30명에서 45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들의 식비로 대략 1회 540원에서 810원 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그 외 수료자는 노력여하에 따라 機臺 1대 및 기구를 급여 받고 또 경우에 따라 원료를 대부하여 제품판매를 할 수 있었다.[56]

55) 『每日申報』 1912. 6. 22., '機業傳習 졸업식'. 『朝鮮總督府官報』 1916. 9. 16. 1238호 14면, '地方工業傳習所表'.

56) 『大正五年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概要』(朝鮮總督府內務部, 1916, 26쪽).

한편 이와 같이 은사금에 의한 기업전습 이외에도 1913년 무렵 동래금융조합에 의한 가마니제조양성소가 설립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때 경남도에서 150원의 보조를 얻고 관내 1면에 대해 2명씩 생도를 모집해서 전습을 꾀하였다.[57]

기업(機業)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공업장려책에 따라 보조받은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58] 더욱이 1916년 가을 일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가마니 이입이 단절되면서 가마니 수요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폭등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마니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농가에서 일반 부업으로 가마니 제조를 장려하고자 하였다.[59] 때문에 이러한 가마니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라 동래기업전습소의 운영은 동래 지역 은사금과 관계된 여타의 전습소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군 은사수산사업의 내용 및 은사수산비는 연속된 자료의 부재로 인해 경남의 은사수산사업의 지출을 통해 추계할 수밖에 없는

57) 『매일신보』 1913. 1. 15., '동래금융조합은'.
58) 『매일신보』 1915. 12. 1., '공업장려보조'.
59) 『부산일보』 1917. 2. 8. '경남의 가마니제조'. "<경남의 가마니 제조>작년 가을 일본으로부터 가마니 이입이 일시 단절됨으로 인하여 가마니 1개에 23전의 고가를 보임을 볼 때 현재 관내 각 군에서 생산되는 가마니로는 도저히 본도 내에서 수용함데도 부족함은 최근에 명확한지라. 농가에 일반부업을 장려함에는 여사히 적절한 것이 다시 없겠음으로 경남도청에서 그동안 가마니 제조원료수입을 독려한 결과 본년 6월까지 20만개의 가마니 제조의 생산을 볼 계획인데 이를 작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에 달한다더라."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추계한 근거는 1910년대 은사수산사업은 각 府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예산의 관리는 도장관이 하였으며 황해도와 같이 은사금의 지방비 편입 이전에도 이미 지방비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 은사수산사업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각 府郡이 공동으로 여 수산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참고로 하여 특히 1915년에서 1916년 동래군과 관련된 은사수산사업 및 은사수산비에 대해 추계하였다. 이때 1915년과 1916년의 시기를 살펴본 것은 기왕의 기록상에서 이 무렵 동래군과 관계된 은사수산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동래군과 관계된 은사수산사업은 농사장려와 공업장려의 비율이 높았다. 그 중 주목되는 점은 공업장려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공업장려책의 영향이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공업전습을 장려하면서 유망업종에 대한 보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취했다. 그 주요 사업은 도별로 달랐는데 경남의 경우 기업전습(機業), 제사(製糸), 목금공업, 패세공(貝細工)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민중의 호구지책을 지원하기 위한 은사금사업 역시 공업장려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동래군 은사수산비의 경우 은사금의 지방비 편입 이전에 이미 지방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왕의 연구를 빌리자면 지방비에 편입되기 이전 은사금사업의 지출은 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래군의 경우에는 동래기업전습소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였다.『朝鮮總督府官報』(1916년 공업전습소표)에 의하면 동래기업전습소는 개인이 경영하였고 지방비 보조를 받았다고 적혀있으나 운영비가 개인경비인지 은사금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1912년과 1917년의 신문기사에서는 ‘은사수산장’, ‘은사금으로 설립’ 등의 내용이 확인되

고 있다. 이는 황해도의 경우처럼 은사금이 지방비에 포함되기 이전에도 지방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동래군과 관계된 은사수산사업의 전개를 보면 전습생의 호구지책에 일정하게 도움을 주었으나 잠업장려의 경우와 같이 정책의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수산장려(水産奬勵)의 경우 그 자체로 전습생의 호구지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전습(機業傳習)의 경우 은사수산장인 東萊機業傳習所의 운영이 대표적으로 가마니 제조가 주였다. 특히 1910년대 가마니의 공급부족과 가격 인상 등으로 가마니 제조는 부업장려로 적극 권장되는 유망업종이었다. 따라서 동래군과 관계된 여타의 전습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잠업장려의 경우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한 잠업장려가 도리어 농가에 비용을 전가하게 됨에 따라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無桑養蠶'에 따른 추가 비용과 성과지표 중심의 식민지 행정 사이의 모순을 농민이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정리하면 동래군과 관계된 은사수산사업은 전습소의 경우 전습수료생들의 호구지책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업 장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양잠장려의 경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양잠장려는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 사정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 받았다. 이는 은사금을 통해 식민지 행정의 호혜성을 전하려는 식민지 당국과 그에 부응해가는 지방 행정의 관계 속에서 농가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시보』
『(朝鮮各道府郡)臨時恩賜金由來及基ノ事業槪要』, 朝鮮總督府, 1911.
『朝鮮統治三年間成績』, 朝鮮總督府, 1914.
『大正五年度臨時恩賜金豫算及事業槪要』, 朝鮮總督府內務部, 1916.
『東萊案內』, 東萊郡, 1918(부산근대역사관 소장).
『慶尙南道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21.
『最近朝鮮事情要覽(大正七年)』, 朝鮮總督府, 1922.
『慶尙南道社會事業槪要』, 慶尙南道, 1925.
『釜山敎育五十年史』, 釜山敎育會, 1927.
『東萊郡郡勢要覽』, 慶尙南道東萊郡, 1929.
『郡勢要覽』, 慶尙南道東萊郡, 1939.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1940.

2. 저서 및 논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선인, 2010.
김인호, 「합방의 콩고물, 임시은사금」, 『인간과 문화 연구』 17, 2010.
_____, 「고종 순종 시기 恩賜 제도의 운영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_____, 「일제강점기 경기도 배당 임시은사금의 지방비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2020.
_____, 「'조선총독부의 꽁돈' 경상남도 배당 지방 임시은사금 연구」, 『지역과 역사』 46, 2020.
박철규,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의 사회사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2006.
배민재, 「1910年代 朝鮮總督府 臨時恩賜金事業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_____, 「1910년대(年代)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은사금사업(臨時恩賜金事

業)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韓國史論』55, 2009.
이방원・이방현,「일제전기(1910~1931)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과 그 특성」,『서울과 역사』88, 2014.
전지영,「일제강점기 臨時恩賜金의 분배와 성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조명근,「조선총독부 제생원의 운영과 실태」,『전북사학』54, 2018.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Operation of Industry Based on Temporary Royal Grant Fund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in the 1910s - focusing on Dongnae County -

Sunwoo, Sung-Hy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template the operation of industry based on temporary royal grant fund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in the 1910s focusing on Dongnae county. Immediately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emporary royal grant fund under the name of the Japanese Emperor was issued and distributed to each district of Choseon. The royal grant fund distributed to the South Gyeongnam province in 1910 was 1,606,00 won and by the time the 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as completed in 1914, it was appropriated as 1,577,700 won. This was again distributed to each Bugundo of Gyeongnam and 68,500 won was allocated to the Dongnae-gun, of which 5% corresponding to 3,425 won was used as fund interest so as to make progress in fishing business. Such distributed amount was used in various marine business including agriculture, sericulture, textile manufacturing, fisheries, livestock industry, etc. fulfilled in Dongnae area, and subsidies for public ordinary schools, funds for ruined farming, etc.

If you take a look at the development of temporary royal grant fund in relation to the Dongnae-gun, there was also an aspect for the promotion of sericulture in which the intention of the policy failed to reflect the reality. The promotion of sericulture for enhancement of farming household economy resulted in the occurrence of situation of being neglected as, on

the contrary, it passed on the expense to the farming households. For the promotion of fisheries, it in itself was helpful to some degree to the means of livelihood of students of vocational education. In case of textile vocational education, manufacturing of straw bags were dominated for the operation of Dongnae textile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temporary royal grant fund. Particularly in 1910, manufacturing of straw bags was highly recommended promising business as promotion of extra business due to short supply and price increase, etc. Therefore, it seems to have been operated more stable than other vocational education center in relation to Dongnae-gun.

Key Word: Temporary Royal Grant Fund, Temporary Royal Grant Fishery, Fishery Vocational Education, Promotion of Sericulture, Promotion of Textile Manufacturing, Promotion of Agriculture, Promotion of Livestock